

화이자 양계사업부, 아시아 총괄 사장 입성



1849년 미국 뉴욕 브로클린에 처음 등지를 마련한 화이자는 글지의 제약회사로 성장하면서 현재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지사를 두고 인체, 동물약품으로써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화이자는 지난 2007년 종란집종기술을 자랑하는 엠브렉스를 인수, 양계분야에 적극 뛰어들면서 2000년에 잠시 손을 놓았던 양계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지난 6월 1일부로 화이자 아시아 양계사업부의 총 책임을 맡게 된 신창섭 사장을 만나 앞으로 사업방향 및 각오를 들어보았다.

한국 첫 아시아 지역 사장

신창섭 사장은 지난 1989년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한국화이자 동물약품 영업부에 처음 입사하였다. 그곳에서 8년 동안 영업부, 기술부, 마케팅부를 거쳐 반려동물사업부 영업이사로 승진, 근무한 바 있다. 그 후 7년 동안 엘랑코코리아와 버박코리아에서 근무하면서 기술부, 허가개발부 및 마케팅 이사, 부사장을 역임하

▲ 신창섭 사장

- 1989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 1989 한국화이자 동물약품 입사(영업부, 기술부, 마케팅부, 반려동물사업부 영업이사)
- 1996 엘랑코 코리아 기술 이사
- 1998 버박코리아 마케팅 이사, 부사장
- 2004 한국화이자 제품개발부 이사
- 2008. 6 화이자 양계사업부 아시아 지역 사장

면서 동물약품업계의 핵심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4년 한국화이자에 재입사하여 제품개발부 이사, 상무로 활동하였다.

이번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 책임자로 부임하게 된 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창섭 사장은 화이자 양계사업부 아시아 지역담당 사장으로 임명 받게 되는데 대해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의 양계산업이 세계로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엠브렉스 합병을 통한 양계산업 진출

다국적 기업인 화이자는 1990년대 한국지점인 한국화이자 내에 양계사업부를 두고 항생제, 첨가제 등을 공급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화이자는 2000년 이후 양계산업을 포기하고 인체약품 등에 비중을 두었다. 신창섭 사장도 양계사업부에 몸을 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계산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화이자는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때문에 양계산업을 배제할 수 없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던 중 세계 종란접종기술 등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이 큰 엠브렉스를 발견하고 2007년 사업의 동반자가 되면서 다시 양계산업에 발을 들였다. 화이자가 매력을 느끼고 인수한 엠브렉스는 1985년 설립된 바이오 회사로 종란 내 백신접종 기술인 인오보젝트 시스템(Inovoject[®] System)을 통해 마래, 감보로, 콕시듐을 종란 내 접종시키는 신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무정란 선별은 물론 감별까지 가능한 기술을 개발, 상용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노보시스템의 장점은 조기면역 형성, 스트레스 감소, 노동력 절감 등 많은 이점

이 있다. 한국화이자 동물약품사업부는 한국엠브렉스 지사 사장으로 있던 황명수 사장이 맡고 있으며, 광주동에 있던 화이자 사업부가 명동으로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에 한국 알리는 주역으로

신창섭 사장은 아시아 지역의 양계 성장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 시장은 무궁무진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특히 인도는 아직 양계산물 소비가 가장 많고 인구도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보이면서 아시아 시장에 다크호스로 등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장차 인도가 개발되면 중국과 인도의 협력생산기지까지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섭 사장은 7월 1일 퇴임한 로빈 샤 사장의 후임으로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화이자에서는 신 사장이 30여년동안 동물약품과 농업분야에서 훌륭히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창섭 사장은 아시아지역의 효과적인 영업전략, 활동 개발 및 성취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화이자 아시아 양계사업본부는 북경, 홍콩 등에 분포되어 있는 지사를 상해로 모두 집결하게 되며, 신창섭 사장은 이사가 마무리되는 10월경에 상해로 거점을 옮겨 총체적인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인수인계 과정중 아시아 지역을 많이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한국에 대해 무척 호의적이었으며, 사료 등 다양한 업체들이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신창섭 사장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내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